



금융감독원

보도참고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5.4.17.(목)		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 진	(02-3145-8170)
		담당자	팀 장	이원흠	(02-3145-8180)

금감원,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

-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인 4.17일(목) 오전 원장 및 주요임원 등이 참석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세영향 및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였음
- 이복현 원장은 잠재된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금리인하가 지연되었으나
- 고금리 부담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충격까지 더해지면서 경제하방 압력도 높아져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진단하며
 - 글로벌 경제·금융시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관세 협상 난항, 美 신뢰 악화 등은 금융시스템 불안*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도의 경계감을 가지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
- * 최근 미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중심 경제·금융·무역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는 견해도 제기
-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한 국내 산업·기업 영향, 글로벌 자금흐름과 연계한 금융시장 분석과 대응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호관세 비상대응 TF*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
- * 총괄/시장점검/산업분석/권역별대응반으로 구성하여 관세영향에 종합 대응하고 관계부처와 협력
- ① 관세충격이 큰 수출기업, 협력업체 및 산업단지 인접 자영업자 등의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* 마련
- * 예) 관세시행 전후 급격한 주문감소에 따른 일시적 자금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운전자금 지원, 수출기업의 매입외환 만가·금리우대, 공급망 재편 등에 필요한 중장기적 투자자금 지원 등
- ② 금융권이 관세대응에 필요한 자금지원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, 자본·유동성 규제 합리화 등 필요한 감독행정 조치 적극 시행
 - ③ 경기부진, 고금리 부담 등에 취약한 가계·소상공인·기업 연체증가가 금융권의 자금공급 기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